

나주 2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총력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활성화 오늘 설명회

내일까지...지정 시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나주시가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선도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6일과 7일 이틀 간 나주 혁신산단·혁신도시, 장성 나노산단에서 총 3차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술수준과 경영 역량,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

을 평가해 지정한다.

지정 시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가산, 산업부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 시 2점 이내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는 6일 오전 11시 혁신산단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7일 오전 10시 30분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오후 3시 장성 나노산단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2층)에서 각각 개최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4월 1차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62개 기업 중 전국 최

다인 28개 기업 지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신청 자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1곳 이상 사업장 보유 ▲기업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 등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 50%이상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근거 발전사업자에 속해있지 않은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정 누리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기업지원, 기술특례상장(IPO) 등 에너지특화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코어지구(나주혁신도시시원-스마트그리드), 연계1지구(함평·장성-에너지효율), 연계2지구(목포·풍력) 총 3개 지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나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혁신·일반·신도 산단, 한국에너지공단 연구소 및 클러스터 등 총 면적 6.15㎢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포함됐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 전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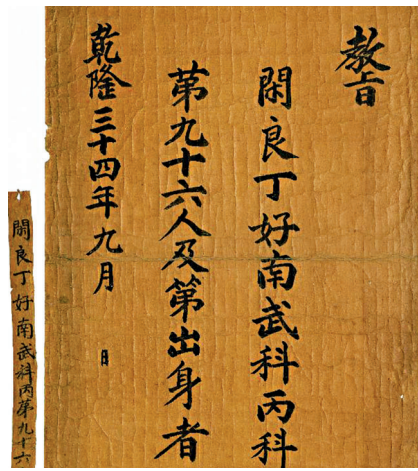
영광군은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사진)가 최근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47호로 지정 고시 됐다고 5일 밝혔다.

정호남(1736~1812)은 조선 후기 무신으로, 영조 45년(1769) 무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조 때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했고 장용영 소속 군관으로 활약, 후에 종3품 안홍첨사를 역임했다.

이번에 지정된 ‘영광 정호남 관련 고문서’는 정호남이 무과에 급제해 수여받은 홍패를 포함해 그가 관직생활 동안 받았던 교령류 등 모두 41점이다.

고문서에서는 무신 정호남의 관직 생활 과정과 관원의 임명 및 지역 인물의 정계 진출, 문중의 위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관찬 기록과도 일치하는 다수의 실물자료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이 인정받았다.

이번 지정된 문화재를 통해 영광군은 모두 72건의 지정문화재(국가 16건, 전



남도 41건, 군 향토문화유산 15건)를 보유하게 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정된 문화유산을 관리·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관내 문화유산을 꾸준히 발굴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우체국 결원 모두 승인”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 20여명이 지난 2일 담양군 담양읍 담양우체국 정문 앞에서 ‘담양우체국 결원 모두 승인’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

화순, 1천억대 국비 정부 예산안 반영

백신·첨단의료 분야 등 65건 국무회의 통과

내년정부 예산안에 화순군이 요청한 국비 예산 1,000억여 원이 반영됐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역대 최초 ‘국비 1000억원’ 대를 확보하게 된다.

5일 화순군은 “2022년도 정부 예산에 1,011억 원이 반영돼 각종 지역 현안 사

업, 백신·면역 분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화순군 주요 사업은 65건이다.

백신·바이오 분야는 ▲국가 백신안전 기술지원센터 구축(총사업비 283억·반

영액 96억)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30억·14억)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 이노베이션 랩 구축사업(450억·28억) 등 13개 사업 368억(총사업비 636억)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화순이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흥 특고세 16억원 확보 호우피해 항구 복구 집중

장흥군은 수해 복구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장흥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 200억 원에 특별교부세 16억원 추가 확보로 지방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호우 피해 항구 복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8월 초부터 수해복구 사업 총 120건에 대해 자체설계 및 용역을 발주해 9월 초 설계를 마무리, 9월 중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는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삶이 평소처럼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항구 복구를 서두를 것”이라며 “피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내년 정부 예산안 920억 반영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등 총 59건

나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 관련 예산 920억원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강인규 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공직자가 혼연일체로 협력해 기재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현안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초강력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5억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30억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력기술교육센터 건립(53억원) 등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과 맞물린 에너

지산업분야 사업들이 반영됐다.

이 중 초강력레이저센터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가대형연구시설이다.

열악한 호남권 과학기술·연구 인프라 개선을 물론 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국책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레이저를 이용한 차세대 에너지 연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도심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32억원) ▲나주국강 문화재생산업(5억원)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생활편의 사업들도 포함됐다.

/나주=이재순 기자

영광 신품종 딸기 재배기술 ‘착착’

‘금실’ 품종 이론·현장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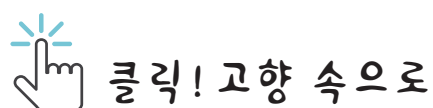
영광군이 최근 딸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품종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신품종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설향’ 품종 위주의 편중재배 문제를 해결하고 프리미엄 딸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품종의 안정적인 농가 정착과 조

기 보급 확대를 위해 ‘금실’ 품종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했고 신품종 재배 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영농실증포에서 현장교육도 실시했다.

‘금실’은 2016년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평균 당도가 11.2브릭스로 높고 연한 복숭아 향이 나며 과즙이 풍부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과육이 단단한 특성을 갖고 있어 장거리 수송에도 유리하다. /영광=곽용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농협 담양군지부, 양파빵 상품권 기탁

담양군 담양읍은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지부장 이재연)에서 저소득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양파빵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양파빵은 올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농가를 돕기 위해 파리와 게트와 농협이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전달받은 상품권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정 32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연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농가와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원 담양읍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담양을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주)유성건설 김태영 대표이사, 마스크 기탁

(주)유성건설(대표이사 김태영)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에 달라며 KF94마스크 1,000매를 장흥군 관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최근 관산읍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해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이다. 관산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마스

크를 마을별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배부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희망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김태영 대표이사는 “마을 주민들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금남동, ‘나눔가게’ 인증 현판

나주시 금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밀란찬 도시락 나눔’ 사업에 밀란찬을 제공해준 관내 식당업체 6곳에 ‘나눔가게’ 인증 현판을 부착했다.

‘나눔가게’ 현판 사업은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더 많은 후원자 발굴을 위한 신규시책이다. 이날 ▲보고싶은집(대표 이거미) ▲공원식당(대표 돌이네(대표 남일수) ▲공원식당(대표

이정덕) ▲메주애꽃(대표 신정애) ▲서문식당(대표 정향덕) ▲참맛식당(대표 김수미) 등 총 6개 식당에 현판이 부착됐다.

이들 식당에서 후원한 밀란찬 도시락은 매주 화요일 지사협 위원들이 끼니 해결이 어려운 홀몸노인 등 생활취약계층 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있다. /나주=조충권 기자